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4월 29일) 2024년 6월 5일 수요일

비구니스님 인명정보 '아카이브'로 만난다

韓비구니승가연구소, 4년간 구축
비구니스님 343명 중심으로 구성
콘텐츠 개발·다양한 언어로 제공
'시맨틱 데이터'로 정보 확장 용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비구니스님의 생애와 수행 과정, 사찰 정보와 포교 활동 사항까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비구니스님 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됐다. 키워드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시맨틱 데이터'를 적용, 비구니스님들의 세계를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게 구축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산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수경 스님, 이하 승가연구소)는 5월 27일 서울 법룡사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비구니 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 보고회'를 진행했다.

비구니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 사업은 전국비구니회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불사다. 역대 비구니스님들의 활동과 정보를 축적, 이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4년여간 편찬 과정이 마무리된 1차 비구니 인물사전은 '한국비구니 수행담록' 상·중·하 3권에 실린 비구니스님 329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 외에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출가한 스님들을 포함해 343명이 수록됐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비구니스님들의 생애와 수행과정, 포교활동, 주석한 사찰의 위치와 역사문화를 스토리 위주로 소개해 다양한 정보를 시간과 공간, 사건을 중심으로 촘촘한 관계망을 구축, 데이터화한 것이 특징이다. 추후 법문 자료, 사찰 관광 안내, 불교와 비구니스님에 대한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 신문기사 작성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텍스트를 분석해 키워드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시맨틱 데이터'를 적용, 의미있는 키워드끼리 연결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가 곧 참여가자 돼 정보를 더해가며 확장해나갈수 있어 향후 가치도 크다는 게 승가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승가연구소는 비구니 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들을 세계 각국 언어로도 제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비구니스님에 관한 신문기사 디지털화 작업도 진행, 추후 인물사전 아카이브와 연동시켜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디지털 불사에 혼신을 다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용 스님은 "많은 이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비구니 디지털 인물사전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라며 "윗대 어른스님들의 수행과 포교에 대한 수승함과 업적을 확인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비구니 승가에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후배들을 키워내는 데 큰 자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비구니스님들이 열었다"며 치하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대 훌륭한 비구니스님들의 삶과 수행, 포교와 불사 등을 촘촘하게 데이터화한 이번 아카이브는 장차 디지털 불사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대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스님 자료집 제작을 시작한 20여 년 전을 회고했다. 본각 스님은 "개인의 힘으로 무모하게 시작한 불사가 비구니스님들의 관심과 봉사자들 덕분에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 시대 한국비구니계의 자취를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장소가 될 아카이브를 앞으로 더 멋지게 펼쳐나가는 것은 후배스님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20여 년 전 기초 자금을 지원해준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월 29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동국대 불교동아리 연합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간담회 직후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대표들과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총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全 단과대 불교동아리 창립 동국대 '전법 역량' 결집

5월 29일 불교동아리 연합간담회
14대 단과대학 동아리 대표 참석
동아리별 특성화 활동 계획 발표
학교, 장학 · 행정 지원 등 약속해
돈관 스님 "118년 역사서 쾌거"

"처음 단과대학별로 불교동아리를 모두 창립하겠다고 했을 때 '두 달 만에 가능할까'라는 우려와 걱정들도 있었지만 기우였습니다.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은 1906년 개교 이래 118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쾌거입니다."

지난 5월 11일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완료한 동국대가 대학생 전법 역량 결집에 나섰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월 29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동국대 불교동아리 연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3월 20일 처음 창립했던 사회과학대학 '템플애플'부터 미래융합대학 '퓨처핸접'까지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대표와 지도교수, 지도법사가 참석했다. 또한 중앙동아리 '동불'과 5월 30일 오후 2시 정각원에서 창립법회를 한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학생 대표도 참여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건학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돈관 스님은 "지난해 입적하신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대종사께서는 대학생 청년불자 양성이 한국불교 중흥의 해답이라는 가르침을 남기셨다"면서 "앞으로 저와 대학은 모든 원력을 우리 불교동아리 활성화에 쏟을 것이다. 지도교수와 지도법사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존 장학제도를 개편하고 저 또한 기부를 열심히 뛰며 많은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나아가 9월 24일 예정된 불교문화축전은 불교동아리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며 스스로 눈높이로 큰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회장과 동불 회장에게는 '제3기 동국건학장학생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이들에게는 연 5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또한 이들은 9월 24일 열리는 '불교문화축전'의 학생 기획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실무적으로 구체화된 불교동아리 지원 방안도 나왔다.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가 밝힌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장학제도다.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회장에게는 '동국건학장학'을 통해 장학금이 수여되며, 미래불자육성장학에 동아리 회원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게 된다.

새로 신설되는 '동국가람장학'을 통해서는 동아리 회원 모두에게 연 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이밖에도 총무원 장학, 동국인재장학, 불교 청년 지도자 육성 장학, 이서장학, 해외 학술 탐방 장학 등 다양한 장학제도에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에 대한 물적 지원도 이뤄진다. 동아리별 운영비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도교수에게는 봉사 및 업적 심사 점수가 추가로 부여된다. 지도법사에게는 매달 30만원의 활동비와 함께 연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한 오는 6월 29일 동아리 연합체인 '불교 학생 연합'이 발족함에 따라 동아리 회원들이 회의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같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에 학생들도 대학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 계획으로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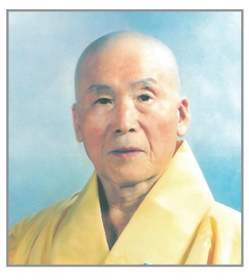
불교대학 '가람수호대'는 불교유적 답사를 통해 한국불교사를 되새겨보는 활동을, 문과대학 '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전국 사찰을 여행하며 불교문화를 체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법과대학 '불법(佛法)단체'는 중구민과 동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봉사와 사찰 관련 법률 쟁송 등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경영대학 '다붓다붓'은 불교사상에 기반한 경영론을 연구하는 스터디 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약학대학 '악사여래'는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봉사와 사찰 플로깅을, AI융합대학 'BUDDHAI'는 정각원 메타버스 구축을 계획으로 내놨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말 환희심이 넘치는 자리"라면서 "한국불교 근대사 안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2000명의 학생들이 연합동아리를 참여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정진의 형태로 이끌 것인가'이다"며 "학교에서는 대학생 청년불자들의 학업과 신행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각원장 제정 스님을 비롯해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이창한 서울건학위원회 사무국장, 김규한 총무부장 등이 함께 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세계초대법왕 일붕존자 제28주기 추모다례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세계불교 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오직 불교포교와 세계평화, 민족 평화통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서경보 일붕존자의 제28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총본산 일붕선원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68(2024)년 6월 14일 금요일(음5월9일)오전 10시 30분
▌장 소 : 일붕선원대법당
▌행사식순 : 1부 추모다례재 / 2부 추모대법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전 화 : (02)991-8175,8904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